

일본경제리뷰 No.19_01

< Special Issue >

TPP11, 일본·EU EPA 발효로 거대경제권 탄생

Contents

<Special Issue>	1
I. 한일경제동향	4
II. 이달의 일본경제	
1. 경기·무역 동향	8
2. 경제정책	12
3. 기업전략	15
III. KJCF&KJE News	20
IV. 이달의 추천자료	21
V. 한일경제지표	22



< Special Issue > TPP11, 일본·EU EPA로 거대무역권 탄생

-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TPP11(CPTPP)이 2018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된데 이어, 2019년 2월 1일부터는 일본·EU FTA(EPA)도 발효됨
- 무역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옆에 두고 세계 GDP의 40%가까이를 점하는 거대무역권이 형성, 보호주의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한 시급성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
□ 관세철폐

- TPP11은 일본을 제외한 10개국이 최종적으로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게 됨
 - 일본도 공업제품의 100%, 농림수산품의 82.3%의 관세를 최종적으로 철폐함
 - 일본·EU EPA에서도 일본측이 94%의 품목에서 EU측이 99%의 품목에서 각각 관세를 철폐함

□ 투자,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

- TPP11에서는 교섭 결과, 투자,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짐
 - 예를 들면, 베트남은 소매분야에서 입점규제를 완화하게 됨. 편의점 등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는 큰 기회가 됨
 - 베트남은 금융 분야에서도 외국기업의 출자비율 상한을 15%에서 20%로 상향조정됨. 이에 따라 메가뱅크 등의 진출이 이루어지면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전개도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음
 - 말레이시아에서도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함. 현재는 외국은행이 설치할 수 있는 지점수가 8개로 제한되어 새로운 점포 및 ATM은 설치할 수 없음. 이를 TPP11개국에 한하여 지점설립의 상한을 16개로 상향조정, 또는 ATM의 신규설치도 인정하게 됨
- 무역 원활화를 위한 룰도 제정하여 역내 통관절차도 개선함
 -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일본과는 달리, 세관에서의 통관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선식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음

- TPP11에서는 공항에 화물이 도착한 후, 원칙 48시간 이내에 업자가 화물을 받을 수 있는 체제정비를 가입국에 요구할 수 있음
- 비자발급 기간의 단축 등도 실시됨. 비즈니스퍼슨에 동행하는 가족도 비자를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도 있음. 역내 출장이나 해외전근 등이 보다 더 용이해짐
- 나아가 데이터의 교환을 둘러싸고, 안전하고 자유로운 유통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룰도 제정됨. 국경을 걸치고 생산 및 판매 등 다양한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가운데 역내 비즈니스 확대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
- 해외에는 데이터 보관을 위한 기기류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외국기업에 요구하는 국가도 있는데, TPP 역내에서는 이 같은 강제조치를 금지함
- 예를 들면, 일본기업은 일본 내 및 제 3국에 설치한 서버를 경유하여 사업을 할 수 있음
- 해외 전개 시 초기투자비용도 적어지는 이점도 있음. 개인의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상호운용도 실시, 역내에 안심하고 정보를 반출할 수 있게 됨

□ 관세 2,200억엔 감소

- TPP11의 효과는 매우 큼
-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소에 의하면 일본의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는 캐나다와 호주 등 5개국만으로 발효 후 1년째에 약 20억달러 감소하게 되고, 여타 10개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세도 1년째만으로 약 1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시산되고 있음(일본경제신문 2018/12/30)

□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노린 일본기업들의 전력투구

- 일본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노려 이미 전력투구하고 있음
-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최대 38.5%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발효 후 16년째에는 9%로 됨. 일본 최대 유통업체인 이온리테일(AEON)은 발효에 앞서 12월 상순 호주 타스메니아 쇠고기의 인기상품 가격을 100그램당 20-130엔정도 인하했음

- 산토리와인인터네셔널은 일본-EU EPA가 발효되는 2월 1일 출하분부터 69개 품목의 와인 가격을 인하, 출하가격 기준으로 1-11%정도, 20-140엔 인하함
- 이토추상사는 2018년 봄, 베트남의 국영 섬유업체 비나텍스에 약 50억엔을 추가 출자하여 베트남 정부에 다음가는 대주주가 되었음. 해외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예를 들면, 캐나다에 10,000엔의 코트를 수출하는 경우, 20%이하였던 관세가 제로로 됨. 판매가격의 인하나 이익폭의 확보 등 비즈니스의 우위성은 높아짐. 2021년까지 수출을 1.5배인 1,000억엔으로 늘릴 계획임
- 캐나다에 수출도 관세가 6.1%에서 5.5%로 인하, 단계적으로 제로로 됨. 일본 업체들 각사는 부품수출도 포함하여 경쟁력 향상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□ 미국과 중국에는 타격

- 한편 TPP11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중국은 타격을 입게 될 것임
- 2007년에 일본과 칠레의 EPA가 발효되었을 때 칠레산 와인의 인기가 높아져, 2015년에 프랑스산을 제치고 수위에 올랐음
- 2007년에 미국산과 칠레산 와인의 수입량은 10,000킬로리터 전후로 거의 같았으나, 2017년에는 8배의 격차가 발생했음
- 자유무역권이 확대되면 쇠고기 등도 미국산 경쟁력은 떨어지기 마련임
- 의류 분야에서는 봉제공장만이 아니고 섬유사 및 직물 등 원재료의 생산거점을 중국으로부터 베트남 등에 이전하는 움직임이 확대됨. TPP11의 감세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국에서 생산된 섬유사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
- TPP창설 움직임은 언젠가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권을 형성, 중국의 시장개방을 위한 포위망을 구축할 의도가 있다고 일본경제신문(2018/12/30)은 보도하고 있음
- 가령 미국이 TPP11 등의 자유무역권에 들어가면, 세계 GDP의 60%를 점하게 됨

□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GDP 증대효과

- 일본정부는 TPP11과 일본·EU EPA에 의한 일본의 GDP 증대효과를 각각 약 7.8조 엔, 약 5.2조엔으로 시산하고 있음(일본경제신문 2018/12/30)
- 모테기 도시미쓰(茂木 敏充) 경제재정·재생상은 일본의 새로운 성장엔진이라고 강조하고 있음
- 그러나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표명. 일본이 주도하여 11개국의 협정발효로 결말이 났음
- TPP11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, 영국도 참가를 검토하고 있음. 자유무역권이 경제성장을 가속하게 되면, 참가국들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됨

□ 對미 통상전략으로 활용

- 일본으로서는 2019년 초에 시작되는 미국과의 물품무역협정(TAG)교섭에도 의미를 갖고 있음
- 일본정부는 미국내 초조감을 유발하여, 농업관세는 TPP나 일본·EU EPA에서 인정한 수준으로 일본이 타협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기에 매듭질 것을 노리고 있다고 함
- 노무라종합연구소는 TPP11발효와 가맹국확대가 보호주의의 방파제가 되며, 미국을 자유무역으로 되돌리는 지렛대로도 될 수 있다고 함(일본경제신문 2018/12/30)
-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TPP복귀를 촉구하여, 중국에도 가일층 시장 개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TPP11과 일본·EU EPA의 행방이 관건이 되고 있음

I. 한일 경제 동향

□ 對日 무역구조

-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- 이에 한일 간 무역은 가격환산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
- 한국의 對日 무역구조는 섬유류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역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본재, 부품, 소재류 분야에서 역조 폭이 큼

-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역조는 한마디로 한국제품의 對日경쟁력이 일본제품의 對韓 경쟁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데 기인하고 있음
- 생산비용과 품질 및 환율 외에도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일본인 직접투자가 한국제품의 對日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對日 비관세장벽 대책과 일본인 직접투자정책은 對日통상정책의 핵심임
- 2018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 의존도는 5.1%, 수입의 對日 의존도는 10.2%
- 한편, 2018년 한국 제품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은 4.2%

□ 12월 중 對日 무역

- '18. 12월 對日 무역적자는 1,823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적자폭이 증가
- 수입이 줄었는데도 수출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임
- 對日 수출은 2,452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10.9% 감소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
- 10대 對日 수출품목에 기초산업기계 대신에 금속광물이 포함되고 대부분의 품목들의 對日 수출이 감소된 가운데, 석유화학제품의 對日 수출 감소폭이 -21.4%로 증가폭이 가장 큼(한일경제지표 1 참조)
- 對日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금속광물의 對日 수출 증가폭이 25.8%로 가장 큼
- 對日 수입도 4,274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1.2%의 소폭 감소
- 10대 對日 수입 품목에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, 석유화학제품의 감소폭이 -19.1%로 가장 큼
- 소수의 對日 수입 증가 품목 중에서는 그나마 정밀기계의 대일수입 증가폭이 3.0%로 가장 큼

□ 2018년 연간 대일 무역

- 한편, 2018년 연간으로는 對日 무역적자 240억 3,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.1% 감소했는데, 이는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, 대일수입은 감소한데 따른 것임
- 對日 수출은 30,574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14.0%가 증가한 반면, 對日 수입은 546억 500만 달러로 0.9% 감소

< 2018년 12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 달러,%) >

	2018.11월			2018.12월			2018.1-12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對日수출	2,749	9.1	-1.2	2,452	0.1	-10.9	30,574	14.0
對日수입	4,325	-8.6	-12.7	4,274	-13.6	-1.2	54,605	-0.9
무역수지	-1,577	-28.7	-27.5	-1,823	-27.0	15.6	-24,031	-15.1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일본인 직접투자

-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'18. 4분기 일본인직접투자는 크게 증가
 - '18. 4분기 일본인 직접투자는 333백만 달러로 전기대비 246.9%의 큰 폭의 증가로 반전
 - 이는 3분기 일본인투자가 격감된데 따른 반작용 영향으로 추정됨
- '18. 11월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도 741억 엔으로 전기대비 159.2% 증가로 반전
 - 이 역시 10월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한데 따른 반작용 영향으로 추정됨
 - '18. 11월 對韓직접투자는 일본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.5%로 수출의 對韓수출비율 6.8%에 비하여 크게 낮음

< 일본인직접투자 추이 >

	2017	2018	2018 3분기	2018 4분기	2018.10 월	2019.11 월
일본인직접투자(백만달러, %)	1,862 (90.1)	1,301 (-30.1)	96 (-81.0)	333 (246.9)	-	-
전체 외국인직접투자(백만달러, %)	22,970 (7.8)	26,901 (17.1)	3,449 (-68.1)	7,698 (123.2)	-	-
일본의 對韓직접투자(억 엔, %)	4,112 (18.8)	-	3,265 (214.5)	-	289 (-89.2)	741 (159.2)
일본의 해외직접투자(억 엔, %)	559,108 (-18.0)	-	136,902 (-6.2)	-	36,613 (-38.9)	50,113 (36.9)

주 : ()내는 전기비 증가율, 일본인투자는 신고기준, 일본의 대한투자는 국제수지기준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재무성

- 연간으로 보면 2018년에 일본인 직접투자는 13억 100만 달러로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30.1% 감소
 - 이는 한국 수요기업들의 해외이전으로 투자수요가 감소한데 따른 것임
- 4분기 중 일본인투자의 사례로는,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를 받기로 함(2018.11.20. 연합뉴스)
- 이는 2015년 6월 소프트뱅크 그룹의 10억 달러 투자 이후 이루어진 추가 투자로, 국내 인터넷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임

□ 인적교류

- '18. 12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, 전월대비 13.8% 감소
 - 12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58,521명으로 11월보다 13.8% 감소
 - 그동안 일본인 관광객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한일관계 악화와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음
 - 2018년 연간으로는 2,948,527명으로 전년대비 27.6% 증가
- '18. 12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, 15.9% 증가
 - 일본인 한국방문과는 대조적으로 12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681,600명으로 11월보다 15.9% 증가
 - 이는 관서지역과 홋카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정부의 관광부흥지원 사업 효과도 있음
 - 2018년 연간으로는 7,539,000명으로 전년대비 5.6% 증가

□ 기타 한일경제 관계 관련 언론기사, 보도자료 등

- 최근 한일관계가 정용공 문제에 이어, 레이더 문제 등 군사갈등까지 가세하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, 일본경제신문은 사설(2019.1.11)에서 한일간 대립의 영향을 기업활동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음
- 특히 한일경제관계와 관련하여, 일본경제신문은 비록 현 시점에서는 경제계의 대응이 냉정한 편이나, 정작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

- 실일칠주금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 계속되는 경우, 일본기업들은 위축되어 對韓 사업으로부터 철수나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사태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함
- 이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한국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, 한일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을 막아야 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은 주장하고 있음
- 우리로서는 대북관계, 대미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일관계 역시 경제면에서 상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, 한일관계 악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냉정하고도 현명한 대처가 절실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

II. 이달의 일본경제

1. 경기·무역 동향

□ 경기상승세 주춤

- 일본경제의 상승세가 약간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
 - 자연재해의 영향이 소멸됨에 따라 생산활동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, 세계경제의 약세로 수출이 다소 힘을 잃고 있음
 -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11월 경기동향지수(2018년 100, 속보치)는 경기현황을 나타내는 일치지수가 103.0으로 두 달 만에 전월보다 1.9포인트 하락
 - 2018년 9월에는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생산과 출하가 부진한데 이어 10월에는 만회 생산 등으로 크게 상승했으나, 11월에는 10월의 반동영향으로 다시 하락함
 - 11월에 특히 철강과 전자부품의 생산이 10월의 반동영향으로 감소함
 - 그러나 일본 내각부의 기초판단은 보합상태에 있다는 전월의 판단을 유지함
- 앞으로 일본경제는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, 공공수요 등의 내수가 받쳐주지만 세계경제의 감속에 의한 수출 약세가 예상되고 있음
- 그러나 큰 돌발변수가 없는 한, 일본경제는 현재와 같은 회복세가 2019년 1월까지 이어져, 57개월간 지속된 고도성장기의 「이자나기 경기」를 넘어(2017년 12월), 74개월이라는,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록을 갱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함

- 11월의 실질소비는 전년 동월대비 0.6%의 약간 감소
 - 기온 상승으로 전기료 등 광열·수도비 지출이 감소, 그러나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.4% 증가
- 11월의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「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」 기계수주액은 석유, 석탄제조업 투자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0.8% 증가, 전월대비로는 0.02% 감소
 - 「일본은행 단관(短観, 2018년 12월)」에 의하면 기업의 투자계획은 18년 만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. 기업은 시장의 변화가 우려되기는 하나 현재 투자의 재검토는 없다는 것임
- 11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% 감소, 전년동월대비로는 1.5% 증가
 - 컨베이어와 수관보일러 등 범용·업무용 기계공업의 생산이 감소
- 11월의 완전실업률은 전월보다 0.1%포인트 높은 2.5%로 악화
 - 그러나 취업자 수와 피고용자 수는 증가
 -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 0.1포인트 높은 1.63배로 두 달 만에 높아져 여전히 기업들의 채용의사가 강함을 반영
 -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기업들은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채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, 성력화 및 자동화 투자를 늘리고 있음
- 12월의 실질수출은 전월대비 1.8% 증가
 - EU에 대한 실질수출이 전월대비 10.3% 증가로 크게 호조
 - 앞으로 해외경기의 완전한 회복 등을 배경으로 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나, 미중 무역전쟁 등, 통상문제의 동향으로 세계경제에 미칠지도 모르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
- 12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0.7% 상승
 - 유가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이에 기여함. 전월대비로는 0.2% 하락
 - 일본의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중에도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적은 편인데,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있어, 중장기적인 예상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
 -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

□ 무역수지 적자 반전

- 12월 무역수지(통관기준)는 553억 엔 적자로 전월의 7,373억엔 적자보다 적자폭이 크게 줄음
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5,031억엔 적자에서 1,944억엔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6,234억엔 흑자에서 5,678억 엔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
 - 전월비 수출의 증가 반전과 수입의 감소폭 확대가 무역수지적자 축소로 이어짐
- 12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1.4% 증가한 7조 240억엔
 - 수출수량 증가효과가 수출금액 감소효과에 의해 잠식
 - 5대 수출 품목은 변함없는 가운데 원동기의 수출증가폭이 6.7%로 가장 큰 반면, 수출 감소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출 감소폭이 -4.3%로 가장 큼(지표 4)
 - 주요 국가·지역별 수출에서 아세안에 대한 수출만 감소한 가운데, EU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10.4%로 가장 큼(지표 5)
 -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전월대비 2.1% 증가
- 12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7.8% 감소한 7조 793억엔
 - 수입금액감소효과에 수입수량감소효과가 가세
 -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대신하여 의약품이 5대 수입 품목에 포함되고, 액화천연가스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, 의류·동부속품의 수입 감소폭이 -10.4%로 가장 큼(지표 6)
 -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,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-15.4%로 가장 크며,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대비 2.5% 감소(지표 7)
- 한편, 2018년 연간으로는 무역수지가 전년의 2조 9,072억 엔 흑자에서 1조 2,033억 엔으로 적자로 반전됨

- 수출은 전년보다 4.1% 증가한 81조 4,866억 엔으로, 2017년에 수출을 전인한 반도체 제조장치의 수출이 2018년 가을 이후 부진을 보인 것이 주된 원인임
- 수입은 전년보다 9.7% 증가한 82조 6,899억 엔으로, 유가가 2017년보다 30%정도 높은 수준에서 추이한 영향이 컸음

< 2018년 12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8.11월			2018.12월			2018.1-12월	
	금액	증가율 전년동월비	전월비	금액	증가율 전년동월비	전월비	금액	증가율 전년동월비
수출	6.9	0.1	-4.2	7.0	-3.8	1.4	81.5	4.1
수입	7.7	12.5	-0.0	7.1	1.9	-7.8	82.7	9.7
수지	-0.7	-	40.0	-0.1	-	-85.7	-1.2	-

자료 : 재무성

- 12월의 엔화환율(대미달러)은 112.5엔으로 전월대비 0.8% 엔고
 - ‘19년 1월 들어서는 3일 한때 104엔대까지 엔고세가 가속된 후 23일 현재 109엔대에서 추이하고 있음
 - 세계경제의 감속에 따른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증가와 미국의 장기금리 저하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 등이 엔고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
 - 對원화 환율은 100엔당 999원 전월대비 0.3% 원저(엔고)
- 11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대비 36.9% 증가한 5조 113억 엔
 -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와 M&A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, 2016년 이후 M&A의 비중이 그린필드형 투자를 상회하고 있을 만큼 증가하고 있음
 - 일본의 대외M&A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, 해외 현지의 수요확대를 예상한 대외M&A의 증가, 둘째, 금융완화책과 기업가치향상에 대한 의식개혁의 영향, 셋째, 세계적인 크로스보더 M&A증가 등을 들 수 있음
 -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159.2% 증가한 741억엔
- 11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42.2% 감소한 7,572억엔
 -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무역수지로 반전된 것이 주된 원인임

2. 경제정책

□ 생산성 수반하지 않은 최장경기회복 국면

- 일본의 경기회복이 전후 최장기록을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감
 - 2018년 12월에는 2012년 12월을 기점으로 회복기간이 73개월에 달해 세계금융위기 전(2002~2008년)과 같아졌음
 - 세계경기의 견조세를 배경으로 기업들은 설비와 인력을 적극 투자하여 일본경제의 실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상향세로 반전함
-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력의 원천인 생산성 상승력은 과거의 경기회복기에 비하여 둔함
- 이번 경기회복에서는 기업수익의 개선이 눈길을 끌고 있음. 세계경제가 확대하여 전자 부품과 자동차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2017년도의 수출액이 2007년도 이후 가장 많았음
- 견조한 기업활동은 장기적으로 저하기조에 있었던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상승세로 전환시켰음
 - 잠재성장률은 기업의 설비투자 등의 자본투입과 일본 전체로 어느 정도 노동력이 공급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노동투입, 기술진보의 정도를 반영하는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줌
- 일본 내각부에 의하면,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0.8%. 전회 경기회복국면인 2009년 4월~2012년 3월의 0.4%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상승했음
 - 자본투입은 종래에 성장률을 끌어내렸으나 이번에는 0.1% 끌어올리는데 기여했음
- 그러나 정작 중요한 생산성은 사라짐. 과거 5차례의 회복국면에서는 0.9~2.3% 끌어올렸는데 비하여 이번 잠재성장률에 대한 상승효과는 0.5%에 그침
- 기술혁신의 정체는 경기를 상징하는 주력상품에도 나타나고 있음
 - 과거에는 일본이 강점을 지닌 TV와 승용차, PC 등이었으나 이번에 견인차역할을 했던 것은 해외브랜드가 주류인 스마트폰임

- 일본도 생산설비와 부품수요로 혜택을 입었으나 아시아기업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이 일본 업계의 지적임
- 미쓰비시UFJ모건·스탠리 증권 관계자는 호경기 중에 생산성향상에 손을 써야한다고 함.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 경기부양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장래의 성장을 위한 저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
- 한편, 현재 일본경제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어 2019년 1월까지 회복세를 지속한다면 전후 최장기록을 갱신하게 되는데, 일본정부와 경제계에서는 최근 주가하락이 일본의 경기회복에 바로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견해는 적음
-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·재정재생상은 월례경제보고에 입각하여 전후 최장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피력함
- 다만, 최근의 연쇄적인 주가하락이 도를 넘게되면 개인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게 되는 점을 경계하고 있음

□ 일본의 원전수출에 제동

- 일본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해왔던 원전의 수출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
 - 미쓰비시중공업이 터키에서, 히타치제작소가 영국에서 각각 추진하는 건설계획이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계속하기 어려워짐
- 일본정부가 원전수출을 성장전략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인프라 사업으로서 규모의 크기도 있지만, 신설계획이 없는 일본 내에서는 유지가 어려운 원전기술을 수출로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임
- 그러나 그동안 수출의존에는 한계가 보여왔음
 - 일본이 원전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, 어떻게 기술을 높이고 담당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야 하는지 등, 기술·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
- 미쓰비시중공업의 계획은 건설비가 상정한 것보다 2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했다고 함. 히타치의 계획도 사업비가 팽창했음. 터키와 영국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음

- 이들 사업이 좌절되면 일본이 관여하는 해외안전은 제로가 되는 셈임
- 투자의 사업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단념할 수밖에 없으나, 일본 내에서의 신설 원전 가동은 2009년이 마지막이었음
- 일본의 3개 원전플랜트업체들의 원전사업 인원은 2015년까지 3년간 10% 감소했고, 건설에 종사한 경험자도 매년 감소하고 있음
- 미국과 프랑스의 원전업체들도 고전이 계속되고 있음
- 한편, 중국과 러시아의 국영업체들은 국내 신설에 더하여, 신흥국의 원전도입에 맞추어 자금제공이나 연료의 공급·처리까지 일괄적으로 맡고 있음
- 이 때문에 실적을 쌓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
- 에너지 이용지침인 일본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 전체 전원에서 접하는 원전의 비율을 20-22%로 정하여, 중요 원전으로 사용할 것임을 확인했음
- 이를 위해 당분간은 기존 원전을 재가동시켜도 노후원전은 언젠가 폐로시기를 맞게 되고, 더욱이 원전의 건설에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만큼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
- 그러나 2019년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에서는 신증설 논의를 하지 않고 지나쳤음
- 정작 새로운 원전이 필요하게 되면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한다는 지적임
 - 기업들이 인원배치나 설비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, 우선 국가가 원전활용의 구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
- 나아가 원전업체들과 전력회사는 효율적인 체제구축을 위해 재편·집약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되며,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일본·미국·유럽이 기술유지를 위해 제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음

3. 기업전략

□ 신일철주금, 일본제철로 재탄생(일본경제신문 2019/1/11)

- 신일철주금이 해외전개를 위한 포석으로 새로운 경영체제로 이행. 1월 10일 하시모토 에이지(橋本 英二)이 4월 1일 부로 사장에 승진하고, 동일부로 일본제철로 사명을 변경기로 함
- 구 신일제철과 구 스미토모금속이 통합된 이후 6년만임. 중국기업의 대두, 국제경쟁의 격변 등이 주된 배경임
- 하시모토 신임사장은 해외전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사업 추진본부를 통괄. 해외 영업경험이 많고, 브라질과 중국 등 신흥국의 제철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임
 - 인도와 동남아 등 철강시장이 확대한 지역에서의 발판구축을 위해 현지기업에 대한 출자와 매수, 운영 면에서도 경험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- 2018년 3월기 해외사업의 연결경상이익은 450억엔으로, 전체에서 접하는 비율은 15%에 그침
 - 그룹의 해외조강생산능력은 현재 2,200만톤으로, 일본 내 철강 생산량 5,000만톤의 절반을 차지함. 해외를 둘러싼 수치목표는 공표하지 않고 있으나, 확대의지는 매우 강함
- 동사의 해외전개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음
 - 전후 부흥을 거쳐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했던 1970년대,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에 맞추어 미국과 동남아에서 생산거점을 확대한 것이 1980년대 초였음
- 중국기업들의 대두 영향으로 신일철주금의 세계조강생산량은 2008년의 2위에서 2009년 6위로 추락했음. 이 무렵부터 해외 생산능력 확대에 목표를 설정, 적극 투자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함.
-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한 환경변화의 하나가 신흥국의 자국산화임
 - 경제성장으로 건축이나 자동차 분야에서 철의 수요가 높아지고, 이제까지의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던 반제품도 포함하여 일관생산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음
 - 현지기업이 비용을 억제하여 정부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음

- 일본기업에 요구되는 것은 제철소와 철강회사에 직접투자하고, 운영에 참여 자국산화에 협력하는 것임. 보호주의 추세도 가세하여 자국산화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
- 해외제철소의 경영에는 과제도 많음. 지분법 적용회사인 브라질의 대형철강업체인 우지미나스(Usiminas)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3년 반에 걸친 혼란을 경험했음
 - 2019년 3월기에 인도 철강업체인 옛살·스틸을 유럽 알세롤·미탈과 매수할 방침이나 운영은 용이치 않음
- 2021년 3월기까지 중기경영계획은 2년째 접어들고 있음
 - 2016년 이후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세계적인 가격하락이 계속되었으나 2018년 월가의 연결순이익은 전기대비 49% 증가한 1,950억엔으로 회복함
 - 그러나 자동차의 소재가 철에서 수지, 탄소섬유로 변화하는 등, 철강업계에는 기술 혁신도 요구되고 있음

□ 일본 전자부품업체, 脫스마트폰화 가속(일본경제신문 2019/1/16)

- 교세라가 미국의 인공관절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100억엔으로 매수,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진출할 예정이고 무라다제작소와 TDK 등도 의료용 센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
- 일본의 각사가 주력으로 하는 스마트폰 시장은 불투명성이 높아지는 한편, 소형·고기능화가 진행되는 의료기기는 안정성장이 예상되고 있음
- 바야호로 스마트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동차분야에 이어 의료분야를 새로운 기동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
 - 교세라는 미국 레노비스서지컬테크놀로지(Renovis Surgical Technologies)의 제품과 기술, 판로 등 상당부분의 자산을 2019년 3월에 취득하기로 합의했음. 주식은 동사의 창업자가 계속 보유하나, 거의 모든 사업을 취득하게 되어 실질적인 매수인 셈임
 - 레노비스사는 티탄을 3D프린터로 가공하여 제작하는 인공관절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. 교세라의 기술과 결합하여 의료기관용 판로를 개척함
- 인공관절 등 체내에 끼워 넣는 식의 의료기기의 세계시장은 약 3조 6,000억엔으로 연 5%의 성장이 예상됨. 미국은 61%를 점하는 최대시장임
 - 교세라는 인공관절사업을 전개하나 일본에서의 판매에 한정되어있었음. 미국 진출로 2024년 3월기 인공관절 관련 매출액을 2019년 3월기에 비하여 2배 증가한 약 400억엔을 목표로 함

- 교세라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세라믹부품 등을 강점으로 하여 미국 애플사와 한국 삼성전자 등 대형 스마트업체에 많은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
- 연결매출액에서 점하는 정보통신 관련 매출액은 50%임. 의료분야에서는 현재 5%에 그치고 있으나, 인공관절 외에 웨어러블 단말기에 사용하는 초소형 혈액량센서 등을 개발함. 자동차용 및 환경에너지 관련 등에 이어 주력으로 육성할 계획임
- 전자부품은 일본업체의 세계시장점유율이 높으나 주력인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으며, 수요변화도 격심함. 한편 모든 모노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와의 융합 등을 배경으로, 의료 관련은 안정된 성장이 예상됨
 - 미국의 조사기관인 프리스트&설리만은 웨어러블형 기기 등의 헬스케어 IoT시장이 2021년에 2106년 대비 3.2배인 720억달러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일본의 전자부품 업계에서는 이러한 탈 스마트폰 의존을 노린 의료관련 분야 진출이 잇따르고 있음
 - 스마트폰 등의 통신관련 연결매출액 비율이 53%로 높은 무라다제작소는 2017년에 미국의 스타트업인 바이오스메디컬을 매수
 - 바이오스사는 환자의 가슴에 장착하여 심박수 및 호흡수, 심전도를 측정하는 소형 센서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 무라다제작소의 센서와 통신부품과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음
 - TDK는 동경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자기센서로 심장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시스템의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있음. 효과를 검증하면서 의료기기업체에 자기센서를 판매,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 - 스마트폰용 터치패널을 생산하는 대형업체인 NISSHA도 의료기기 업체 4개사로부터 사업을 매수, 수술용기구 등의 신제품을 개발. 매출액에서 점하는 스마트폰 관련을 포함한 IT 분야의 비율을 2017년 12월기의 약 50%에서 2023년 12월에 35%로 낮출 계획임
- 일본의 각사는 전동화가 진행되는 자동차분야도 강화하고 있음. 의료용은 자동차용에 비하여, 이익폭이 크고 수익성이 높음
 - 웨어러블형 등 기기의 소형화와 통신과의 융합 등도 진행되고 있어, 센서 및 통신부품 외에 미세가공기술과 소재성형 등 강점을 살리기가 쉬워지고 있음

□ 일본기업들, 생산거점으로서 우위를 확보한 동남아에 진출 러쉬(일본경제신문 2019/1/23)

- 무역을 둘러싼 세계적인 환경변화로, 생산거점으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우위성이 높아지고 있음
- 마루베니가 베트남에서 박스(골판지) 제조에 참여하는가 하면, 퍼스트리테일링도 봉제공장을 늘리고 있음
 -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생산을 이전하는 움직임은 있으나, 미국이 중국제품에 제재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와 같은 흐름이 가속되고 있음
 -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TPP의 발효로 관세철폐의 혜택도 받게 됨
- 마루베니는 이달 중이나 베트남에서 단보루 원지를 제조하는 공장건설을 개시함
 - 약 120억엔을 투자하여 남부 호치민 시 근교의 공업단지에 조성함. 일본 제지 자회사의 기술을 전용하여 라이너보드로 불리는 원지를 만듦
 - 2020년도에 연간 생산능력 35만톤의 설비를 가동할 예정으로,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음
 - 마루베니의 고객은 베트남에 집적해있는 제조업임
 - 한국 삼성전자 등이 진출하고 있어, 전자기기와 기계부품을 곤포하는 골판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 - 마루베니 관계자는 미중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에 대체하는 제조거점으로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
- 일본도 참가하는 TPP11이 2018년 말에 발효, 관세장벽이 없어지는 점도 뒷바람으로 작용함. 베트남 등 5개국도 국내 절차를 거쳐 조만간 TPP에 가입할 예정임
- 베트남에는 의류기업들의 제조거점도 집적해있어 관세철폐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음
- 캐주얼 의류점인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퍼스트리테일링은 중국에서의 생산을 이전하고 있음
 - 2018년 3월에 공개한 유니클로의 주요 거래처 봉제공장의 리스트를 보면 베트남의 공장 수는 39개소로 1년 사이에 약 40% 증가했음

- 중국이 최대 생산거점이었으나 현재는 미중무역마찰의 영향도 우려되고 있음
- 퍼스트리테일링 사장은 미중마찰에 관하여 다소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나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생산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. 베트남에서 생산증강을 염두에 두고 있음
- 역시 캐주얼 의류를 취급하는 아다스트리아(Adastria; 우리나라에도 매장을 가지고 있는 “niko and...” 브랜드 등을 운영)는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에서 섬유사도 조달하여 현지에서 의류의 일관생산을 개시했음
 - 약 80%를 중국생산에 의존하고 있어지만 2-3년 내에 동남아시아의 생산비율을 30%로 높일 계획임
- 일본 JETRO의 조사에 의하면, 2018년 중국의 제조업·작업원의 월 임금은 493달러로 과거 10년 사이에 배가 증가함
 - 한편 동남아시아에서도 임금상승은 현저한데, 베트남은 월 227달러, 필리핀이 220달러로 중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
-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3월 정도에 10%에서 25%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음
 - 인건비에 더해 미중무역전쟁에 의한 관세도 중국에 부과함에 따라, 동남아시아의 우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
- 대만의 전자기기 수탁제조서비스(EMS)업체인 신금보(薪金煲)그룹은 필리핀에 공장을 증설, 중국으로부터 생산을 이관함
- 미즈호연구소의 시산에 의하면, 기업이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할 경우, 베트남의 GDP는 0.5%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됨
- ASEAN은 6억 인구로 EU를 능가하여, 고성장을 유지하는 신흥국들이 많아, 생산거점을 설립할 뿐만 아니라, 왕성한 내수를 보고 진출하는 일본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음
- 다만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주요 무역상대국이기도 하여, 서플라이체인을 통하여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이 나올 가능성도 있음
- 일본전산은 1월 17일 중국의 경기감속 영향으로 대폭적인 이익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
 - 동사 회장에 의하면 중국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함
- 중국의 번조가 동남아시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임.KJCF

III. KJCF & KJE News

□ 한일재단 & 한일경제협회 한일협력사업 모집 안내

○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

- 일 정 : 2019년 3월 14일(목)
- 참석자 : 한일 양국 체어맨, 코디네이터 및 위원 등 약 60여명
- 논의테마(안) :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의 한일협력!
 - 제1세션 :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
 - ▶ 한국측 : 공통분모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
 - ▶ 일본측 : 지금까지의 한일협력 활동에 입각한 향후 과제와 대응
 - 제2세션 :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
 - ▶ 한국측 : 한국 청년인재의 취업난과 일본 노동력부족의 해결방안
 - ▶ 일본측 : SJC의 2018년 활동보고 및 2020년의 포부

- 프로그램 :

일 자	시 간	내 용
3.14 (목)	08:30~09:00 (30)	※ 접수 (INTERCONTINENTAL SEOUL COEX B1 VIVACE)
	09:00~09:05 (05)	개회 (사회자)
	09:05~09:25 (20)	양국 체어맨 개회인사
	(10)	▶ 오석송 META-BIOMED Co.,Ltd 회장, 한국무역협회 부회장
	(10)	▶ 아소 유타카(麻生 泰) (주)아소시멘트 회장, 일한경제협회 부회장
	09:25~10:05 (40)	양국 코디네이터·주최기관 인사
	(10)	▶ 이수철 (주)GH홀딩스 회장, 한일경제협회 상임이사
	(10)	▶ 다카다 노부아키(高田 伸朗) NRI사회정보시스템(주) 사장
	(10)	▶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
	(10)	▶ 고레나가 가즈오(是永 和夫)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
	10:05~11:20 (75)	세션(I) :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
	(20)	▶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「공통분모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(가제)」
	(20)	▶ 후지야마 도모히코(藤山知彦) 과학기술진흥기구 상석팔로 「지금까지의 한일협력 활동에 입각한 향후 과제와 대응」
	(35)	▶ 질의응답
	11:30~12:30 (60)	오찬 (도시락 * 회의장내)
	12:40~13:55 (75)	세션(II) :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
	(20)	▶ 서석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,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「한국 청년인재의 취업난과 일본 노동력부족의 해결방안」
	(20)	▶ 모리야마 토모유키(森山 朋之) 한국미쓰이물산(주) 사장 「SJC의 2018년 활동보고 및 2020년의 포부」
	(35)	▶ 질의응답
	13:55~14:15 (20)	커피브레이크
	14:15~15:10 (65)	전체토론
	15:10~15:30 (20)	양국 코디네이터 총괄 양국 체어맨 총괄 양사무국인사 / 폐회

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www.kje.or.kr/index.php/user_activity/business_view/industry/all/290

IV. 이달의 추천자료

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(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port.jsp>)

- 『미일 통상교섭 개시: 수출자유규제 부활 방지』 2019-01-25
- 『미일 통상교섭 개시: 일본 자동차와 환율 분야에서 어려운 입장에』 2019-01-24
- 『아베노믹스의 행방』 2019-01-15
- 『일본경제의 성장 패러독스』 2019-01-10
- 『지역미래전인기업 사례(16) 삼우보디』 2018-12-28
- 『지역미래전인기업 사례(15) 규난』 2018-12-27
- 『지역미래전인기업 사례(14) 오엑스엔지니어링』 2018-12-26
- 『지역미래전인기업 사례(13) 도요코』 2018-12-24

□ 일본기관 연구보고서

- 『재생가능에너지 대량도입·차세대전력네트워크 소위원회 중간정리』 경제산업성 ‘19.1.22
http://www.meti.go.jp/shingikai/enecho/denryoku_gas/saisei_kano/pdf/012_02_00.pdf
- 『노동방식 개혁과 기업의 대응:노동방식 개혁을 생산성 향상으로 결부시킨 선진국의 예』 일본은행, ‘19.1.17
http://www.boj.or.jp/research/brp/ron_2019/data/ron190116a.pdf
- 『향후 경제산업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』 일본참의원 ‘19.1.17
http://www.sangiin.go.jp/japanese/annai/chousa/rippou_chousa/backnumber/2019pdf/20190116132.pdf
- 『WTO의 경제와 일본의 대응』 일본국제무제연구소 ‘19.1.16
http://www2.jiia.or.jp/kokusaimondai_archive/2010/2019-01_003.pdf
- 『e스포츠산업에 관한 조사연구』 일본 총무청, 19.1.10
http://www.soumu.go.jp/main_content/000551535.pdf
- 『한중일 스포츠산업에 관한 한중일 제휴사업 실현을 위한 조사 및 정책대화 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‘19.1.09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00490.pdf
- 『모텔 베이스 개발관련 자동차산업에의 영향조사』 경제산업성 ‘19.1.09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00496.pdf
- 『세계와 일본의 FTA 일람』 JETRO ‘19.1.05
https://www.jetro.go.jp/ext_images/_Reports/01/da83923689ee6a5e/20180033.pdf
- 『주요 민간조사기관의 2019년 경제전망』 추고쿠전력에너지아종합연구소 ‘19.1.05
<http://www.energia.co.jp/eneso/keizai/research/pdf/MR1901-2.pdf>
- 『달러엔 급락과 앞으로 주목점』 미즈호종합연구소 ‘19.1.05
https://www.mizuho-sc.com/ap/market/report/market/kawase/resources1/mf_exchange_20190104.pdf

V. 한일경제지표

1) 2018년 12월 對日 수출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 목 명	2018.11월			2018.12월			2018.1-1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	총 계	2,749	9.1	-1.2	2,452	0.1	-10.8	30,574	14.0
1	광물성연료	536	35.1	-14.1	505	7.1	-5.8	5,293	70.6
2	철강제품	355	12.3	-0.8	331	2.6	-6.8	4,080	5.1
3	정밀화학제품	191	25.9	2.7	174	16.2	-8.9	2,042	28.3
4	전자부품	170	9.4	1.8	138	-12.4	-18.8	1,859	8.2
5	석유화학제품	168	11.2	6.3	132	-6.9	-21.4	2,146	32.7
6	산업용전자제품	110	-24.3	-13.4	130	6.8	18.2	1,474	-1.5
7	수송기계	109	-10.8	-3.5	98	-8.8	-10.1	1,365	-11.0
8	금속광물	66	-26.9	-4.3	83	-1.4	25.8	941	2.8
9	농산물	98	-14.2	10.1	83	-11.4	-15.3	1,096	2.1
10	기계요소공구·금형	92	-3.3	0.0	78	-11.1	-15.2	1,041	-5.8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2) 2018년 12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 목 명	2018.11월			2018.12월			2018.1-1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	총 계	4,325	-8.6	-12.7	4,274	-13.6	-1.2	54,606	-0.9
1	철강제품	569	2.7	-4.5	562	-3.1	-1.2	6,797	10.4
2	전자부품	501	-16.3	-17.9	493	-10.8	-1.6	6,394	-4.1
3	정밀화학제품	438	10.4	-6.4	449	11.4	2.5	4,911	-15.1
4	석유화학제품	404	16.2	7.7	327	-17.9	-19.1	4,093	-7.2
5	정밀기계	369	-34.9	-31.5	380	-46.1	3.0	6,825	-13.4
6	산업용전자제품	259	-6.4	-3.7	259	-12.8	0.0	3,229	5.7
7	수송기계	255	-15.7	-23.7	246	3.1	-3.5	2,833	0.5
8	기초산업기계	208	-29.7	-9.2	196	-41.3	-5.8	2,733	-17.0
9	플라스틱제품	193	-5.9	-6.3	196	-6.1	1.6	2,247	-5.3
10	산업기계	170	10.9	-16.7	169	2.5	-0.6	2,179	2.0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3) 일본 주요경제지표

구 분		2017	2018						
			2/4	3/4	4/4	9월	10월	11월	12월
GDP증가율(실질,연율,%)		1.7	2.8	-2.5p)	-	-	-	-	-
경기동향지수(2010년100)		-	-	-	-	101.6	104.9	103.0	-
광공업생산증가율(전기비,%)		4.5	1.3	-	-	-0.4	2.9	-1.0	-
실질소비증가율(전년비,%)		-0.3	-1.4	-	-	-1.6	-0.3	-0.6	-
기계수주증가율(전기비,%)		-1.1	2.2	-	-	-18.3	7.6	-0.02	-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전기비	0.5	-0.1	-	-	0	0.3	0.0	-0.2
	전년비	0.5	0.7	-	-	1.0	1.0	0.9	0.7
실업률(%)		2.8	2.4	-	-	2.3	2.4	2.5	-
수출액(조엔)		78.3	20.2	20.1	21.1	6.7	7.2	6.9	7.0
수입액(조엔)		75.4	19.4	20.7	22.5	6.6	7.7	7.7	7.1
무역수지(조엔)		2.9	0.8	-0.6	-1.3	0.1	-0.5	-0.7	-0.1
경상수지(조엔)		22.0	4.9	5.6	-	1.8	1.3	0.8	-
해외직접투자(조엔)*		55.3	14.6	13.7	-	6.0	3.7	5.0	-
환율	달러	112.1	109.1	111.5	112.9	111.9	112.8	113.4	112.5
	원화(100엔)	1,009	989	1,007	999	1,003	1,003	996	999
금리(10년물,%)		0.041	0.089	0.098	0.076	0.115	0.135	0.105	-0.01
주가(닛케이,엔)		20,209	22,341	22,654	65,691	23,159	22,691	21,968	21,032

주: p)는 개정치(2차 속보치) 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4) 2018년 12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(억 엔, %)

순 위	품 목	2018.11월			2018.12월			2018.1-1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1	자동차	11,033	-0.5	-2.8	11,105	-0.5	0.7	123,076	4.1
2	자동차부품	3,318	-3.7	-3.5	3,524	-2.9	6.2	39,910	2.4
3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587	-0.1	-6.7	3,433	-8.2	-4.3	41,502	3.2
4	철강	2,987	2.9	-1.5	2,835	-7.5	-5.1	34,415	4.8
5	원동기	2,440	0.2	-10.8	2,603	2.6	6.7	29,489	7.4

자료 : 일본 재무성

5) 2018년 12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11월			2018.12월			2018.1-1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1	미국	13,905	1.6	-2.7	14,347	1.6	3.2	154,656	2.3
2	중국	13,844	0.4	-6.2	14,026	-7.0	1.3	159,018	6.8
3	ASEAN	11,021	1.4	-1.1	10,888	-1.4	-1.2	126,366	6.4
4	EU	7,452	3.9	-8.1	8,229	3.9	10.4	92,104	6.4
5	한국	4,698	-9.3	-5.3	4,799	-11.6	2.1	57,932	-3.0
6	대만	3,913	-2.1	-4.3	4,032	-7.1	3.0	46,802	2.7

자료 : 일본 재무성

6) 2018년 12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8.11월			2018.12월			2018.1-1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1	원유	9,147	44.0	19.3	8,304	7.2	-9.2	89,109	24.5
2	액화천연가스	4,088	37.6	-2.2	4,744	25.7	16.0	47,303	20.8
3	석탄	2,738	27.4	16.4	2,477	-0.9	-9.5	28,001	8.9
4	의류 동부속품	2,708	1.3	-24.9	2,426	2.8	-10.4	33,036	6.3
5	의약품	2,557	21.2	-9.4	2,426	21.5	-5.1	29,431	11.3

자료 : 일본 재무성

7) 2018년 12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11월			2018.12월			2018.1-1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1	중국	18,875	4.2	0.3	15,970	-6.4	-15.4	191,861	3.9
2	ASEAN	10,981	6.7	-6.7	10,303	0.9	-6.2	123,915	7.3
3	EU	8,834	15.1	-0.1	8,022	2.0	-9.2	96,982	10.8
4	미국	7,671	8.1	-10.4	8,668	23.9	13.3	90,108	11.4
5	호주	4,455	16.9	0.6	4,408	7.9	-1.1	50,484	15.7
7	한국	3,252	11.9	4.7	3,171	3.9	-2.5	35,491	12.6

자료 : 일본 재무성